

신선한 충격 주는 在外韓人 작가들

'민족의 동질성' 확인하는 작품집 잇달아 출간



재외한인작가의 작품엔 작가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한인들이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고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반도가 아닌 다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희노애락을 겪는 것일까. 그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재외한인작품집은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어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서방국가에 정착하여 文名을 떨친 작가의 작품은 꾸준히 소개되어 왔다. 풀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순교자」 「빼앗긴 이름의 김은국, 「꽃신」의 김용익, 「초당」의 강용희와 같은 在美작가는 물론, 유명한 在獨작가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지금도 독자의 사랑을 받는, 숨은 베스트셀러.

이처럼 구미지역 한인작가들의 작품은 별문제없이 소개될 수 있었던 반면에 보다 가까운 중·소·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작품은 정치적 금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소개되지 못하고 있었다. 지리적 국경은 가까와도 이념적 국경은 멀었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말 민주화·개방화의 바람을 타고 북간도나 연변 풍경이 TV화면에 담기면서부터 출판계에서도 이들 재외한인작가들에 대해 구애의 손길을 뺐치기 시작했다.

겨레의 정서 溫存한 延邊문학

이중에서도 역시 제일 많이 시선이 쏠리는 곳은 중국의 연변문학. 가난과 일제의 침탈을 피해 중국 동북 각지로 밀려간 우리 선조들은 척박한 풍토와 싸우며 동북 변강을 개발하고 반제반봉건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갔다. 연변문학은 이러한 복잡다단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동포의 눈물겨운 수난사를 생동감있

게 반영하고 있다.

출판사 슬기는 「중공연변조선족소설선」이라는 기획하에 지금까지 2권의 소설집을 내놓았다. 작년에 출판된 「그녀는 고향에 다녀왔다」는 연변 자치구의 문예지 「아리랑」과 「도라지」에서 선별한 중단편 7편을 실고 있으며, 최근 출판된 「춘삼월」은 작가 리태수의 장편소설이다. 이 두권의 작품집 모두 등소평 이후, 사회주의 정통노선을 고집하는 측과 현대화를 우선시하는 수정주의 노선 사이의 대립과정에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중국의 현대계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풀빛에서 나온 3권의 전작장편 「격정시대」는 문화혁명시 반동으로 몰려 고초를 겪기도 했던 원로작가 金學鐵의 대표작. 식민지에서 태어나 자란 한 소년이 어떻게 민족의식에 눈뜨고 좌익 항일투쟁에 투신하게 되는가를 그린 「혁명성장소설」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일등장작원」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중견시인 金波의 시집 「흰뚨」(한길사)이 나와 있다. 86년 아시아 시인대회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바 있는 김파의 시는 서구적 감수성과 기교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겨레의 순수한 정서를 보여준다. 김소월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만큼 원래의 토속적 정서와 맞닿아 있는 이러한 시세계는 중국거주 한인교포시집 「고향은 언제나 내 가슴속에」(신동욱 편·정음문화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연변문예」와 「천지」에서 뽑은 이들 작품은 노동의 기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통일의 희망을 소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노래하고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변거주 한인들의 생활문화가 구한말 이주 당시의 전통문화를 크게 변질시키지 않은 채로 계승·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이들 시와 소설에는 우리 주위에서 사라진 고유어와 비유법, 전래의 풍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민족 고유의 정서를 보여주는 재외한인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에 거주하는 한인작가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중공·소련·일본의 한인작가 작품이 집중적으로 번역·출판되어 이념과 언어를 초월한 민족적 동질성 확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혼과 러시아의 전통 융합

갓가지 난관 속에서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고수해오고 있는 것은 在蘇한인들도 마찬가지다. 재소한인시선집 「소련식으로 우는 한국아이」(金淵洙 편·주류)는 편자가 시베리아 학술여행 중 수집한 것과 소련내 유일의 한글신문 「레닌기치」에 근래 발표된 작품으로 엮어진 시집. 주로 아마추어의 작품이지만 진솔한 표현이 가슴에 와 닿는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뀔수록 모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간다는 민족적 비애가 시집 표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소련 중앙문단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나톨리 김의 작품도 눈길을 모은다. 현재 「사할린의 방랑자들」(최건영 손명곤 역·소나무)과 「푸른 섬」(김근식 최건영·정음사) 두가지가 번역된 김은 1939년 까자흐스탄공화국에서 태어난 한인 제3세대. 73년 데뷔 이래 일본의 무책임에 희생된 사할린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과 고난을 소재로 삼아 작품에서 독특한 동양적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있다. 그는 체홉과 부닌을 잇는 러시아 단편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음으로써 「한국적 혼과 러시아문학의 전통을 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소나무에서는 소련문단에 큰 충격을 주고 10만부가 발행된 바 있는 장편 「다람쥐」를 번역·출판할 예정이다.

조국의 문제를 일본어로 형상화

이처럼 北方문학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재일동포작가의 작품집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그 이름만 알려졌을 뿐 풍문의 주인공이었던 李恢成·金石範의 작품집이 나왔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회성의 경우, 중편 「다듬이질하는 女人」이 71년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존재가 부각된 인물. 72년 모국에 다녀가기도 한 그의 작품은 작가 이호철씨가 번역, 정음사에서 출판되었지만 곧 판금되고 말았다. 이회성씨는 요즘에도 「民濤」라는 문예지를 발간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미래사에선 이회성의 대표작을 차례로 소개할 계획으로 있다.

제주도 4·3사태를 소재로 꾸준히 작품을 써온 김석범의 대표작 「까마귀의 죽음」(김석희 역·소나무)도 시선을 끄는 책. 1925년 일본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부모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태야말로 「한국현대사의 맹점이자 분단조국의 집중적 모순의 표현」이라고 보고 이를 작품화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극을 재일동포작가가 일어로 작품화했다는 점, 사소설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통의 극한에서 몸부림치는 인간군상을 리얼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84년 아사히신문의 大佛次郎賞을 수상한 화제의 대하장편 「火山島」(김석희 역·실천문화사)가 5월말 출간될 예정이어서 김석범붐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후 일본에서 신화적 존재였던 金史良의 전기 「아리랑의 비가」(安宇植 著·崔夏林 역·열음사)가 출판되었으며, 지문날 인거부운동으로 유명한 김명식의 항일시집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제에 묶여 있던 작품의 활발한 출판에 대해 작가 신상우씨(중앙대교수)는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반갑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일본에서 이미 전까지 나온 김사랑이나 「현해탄」의 김달수도 전향적으로 소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들 재외한인작가 작품집은 이념과 언어를 초월해 민족의 동질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으며, 한국문학의 성숙·확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소개와 깊이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진우 기자